2009

임현미의 춤

"물밑 소리:

The bottom of water

2009.9.23(수) 8:00pm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9 Lim Hyun Mi Modern Dance

임현미

그녀의 춤사위에서는 전통의 향기가 묻어난다. 아마도 어릴 적 이매방 선생에게서 사사받은 흔적일 것이다. 비록 커가면서 현대춤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지만 그녀의 춤에서 묻어나오는 전통의 향기는 그녀의 춤사위에 한국적 춤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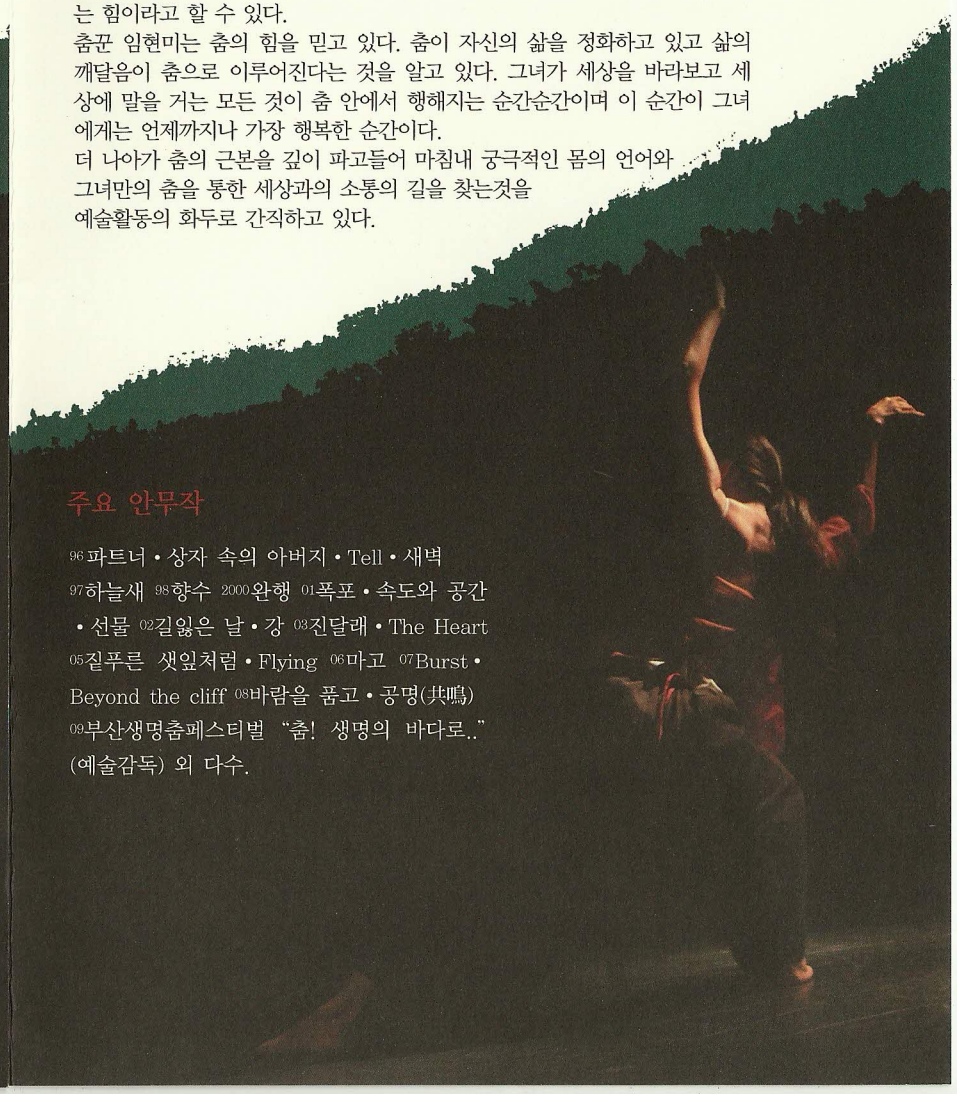
대학교에 들어와 타고난 춤사위로 무용제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현대춤의 한 복판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지만 더욱 새로운 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직업무용단(트러스트 무용단)을 창단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유롭게 춤추는 독립춤꾼이다. 그녀는 현재 자유로운 춤을 지향하는 춤꾼들과 함께 춤으로 만난 붉은 인연이라는 뜻의 연분 홍이라는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녀의 춤장르를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어린 시절 각인된 한국적 정서와 성장 후 만나고 배워온 현대춤 세계가 그녀의 춤 속에서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춤 배경이 관객들과의 짙은 소통을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춤꾼 임현미는 춤의 힘을 믿고 있다. 춤이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있고 삶의 깨달음이 춤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말을 거는 모든 것이 춤 안에서 행해지는 순간순간이며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언제까지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더 나아가 춤의 근본을 깊이 파고들어 마침내 궁극적인 몸의 언어와 그녀만의 춤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의 길을 찾는것을 예술활동의 화두로 간직하고 있다.



주요 안무작

96파트너 • 상자 속의 아버지 • Tell • 새벽 97하늘새 98향수 2000완행 01폭포 • 속도와 공간 • 선물 02길잃은 날 • 강 03진달래 • The Heart 05짙푸른 샛잎처럼 • Flying 06마고 07Burst • Beyond the cliff 08바람을 품고 • 공명(共鳴) 09부산생명춤페스티벌 "춤! 생명의 바다로.." (예술감독) 외 다수.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습니다.
가슴은 무겁게 내려 앉으나
다행히, 잠시 미소가 스칩니다.

9월은 분명하지 않고 평범하게 여겨졌던 달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의미를 지니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가끔씩 놀랄만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놈은 그냥 저 혼자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과 함께 무게를 짊어지고, 진한 자욱을 남기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기약하며 그리고 현재를 가리킵니다.

이런 시간들을 담은 마음 속 깊음을 "물밑"이라 이름붙이며
춤추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물밑의 깊이나 넓음, 무게, 맑고 탁함을 가늠할 수는 없으나
믿어 왔습니다.
결단코, 그 중심에는 뜨거운 열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늘 그곳에 있었을 그 열정을 품고 힘입어
젖은 몸을 불러 일으키고
잠든 마음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

몸의 소리를 내려 합니다.

그 물밑 몸의 소리는 "신명의 춤" 되어
우리를 수면위로 힘차게 밀어올려 솟구치게 할 것입니다.

유일한 이 시간 속에서
뜨거운 "신명의 춤"

나누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The bottom of water "물밑"

슬플때 하늘을 봅니다. 그래도 슬픕니다. 그래서 또 하늘을 봅니다. -대우-

7. 28. 일. 그 사람이 나를 놓아버렸다. -수현-

안개가 자욱하다. 빛은 보이지만 길을 보이지 않는다. -승민-

더 뛸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소리.
누구보다 나만의 소리, 힘껏 외쳐라 "얼쑤!" -현진-

춤추는 사람들

남대우
경성대학교 졸업 현, M-note 대표
안무 : 잿빛도시를 떠나며/ 오대장성/ 비탈로 가는 사람들, 끼워지지 않는 조각에 대한 고민

신승민
전,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현, M-note 단원
안무 : 4인용게임/ 비틀비틀/ 저수지의 개들/ 공존,유감

김수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미학과정 수료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
안무 : 자국/ 망각/ 세상사랑/ Flying/ 달빛꽃 그 후...

허종원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재학중,
2006 중국 Xiamen 현대무용단 활동
2008 KDF 장학생수료,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 M-note 단원
안무 : 반쪽이

김현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2008 연분 홍 "그렁그렁(안무: 조희정)" 출연
2008 임현미의 춤 "공명" 출연, 26회 부산무용콩쿨 금상 수상

조현배
부산대 무용학과 재학중

with 임현미

연주하는 사람들

장재희, 이우창, 방형웅
(남산놀이마당)

김나영
부산대학교 실기 수석졸업
현, 김해 필하모닉 단원

"얼쑤!"

탈춤을 추면서 "얼쑤!"라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일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몸에서 나올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얼쑤!"라는 말을 내뱉으며 다시 나도 모르는 내 몸 안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관객들에게 "얼쑤!"라는 말은 신명과 흥을 돋우는 추임새이나 춤꾼에게 "얼쑤!"가 나오는 순간은 그들에겐 거의 사점(死點)에 가까운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성장에 있어 고통과 상처는 필수적인 거름입니다. 겪는 순간은 힘겹지만 극복 후에 돌아보면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희망적 힘겨움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찬 "얼쑤!"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09 Lim Hyun Mi Modern Dance

"물밑 소리 : The bottom of water

Staff

무대감독 : 손재서 **조명** : 이동진 **사진** : 이장수
영상 : 장희철 **기획** : 원향미 **광고디자인** : 구세은(페이퍼민티)

주최 : 임현미 MDC **후원** : BSCF 부산문화재단
협찬 :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 한국종합렌탈(주)
문의 : 010-2756-1962 / 019-516-2201

본 공연은 부산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작품입니다.